

보도자료

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시기
바랍니다.

제 목 : [BOK 강원경제 메모 11호]
2024년 상반기 강원지역 시군별 은행권 자금흐름 동향

- 2024년 상반기 예금은행 여수신 자료를 분석한 결과,
- 수신은 원주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였고, 여신은 가계대출이 소폭 증가한 가운데 기업대출은 정체
 - 자금흐름을 시군별로 살펴보면, 주력 제조업의 성장 여부에 따라 영동·영서 지역과 시·군 지역 간의 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모습

※ 자세한 내용은 <붙임>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문의처 : 기획금융팀 과장 김동욱, 홍지연, 조사역 나용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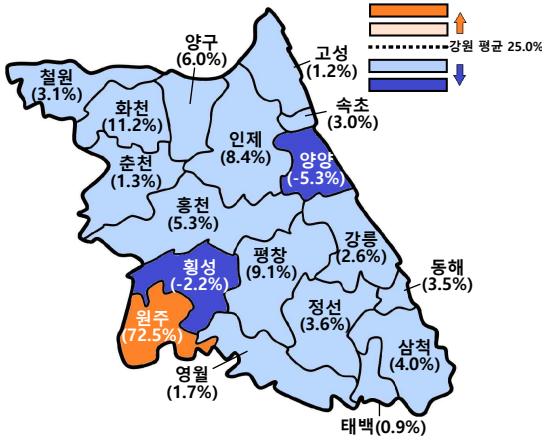
Tel : (033) 258-3291, 3295, 3296 Fax : (033) 257-0525 E-mail : gangwon@bok.or.kr

“한국은행 강원본부 보도자료는 인터넷(<http://www.bok.or.kr/gangwon>)에 수록되어 있습니다.”

2024년 상반기 강원지역 시군별 은행권 자금흐름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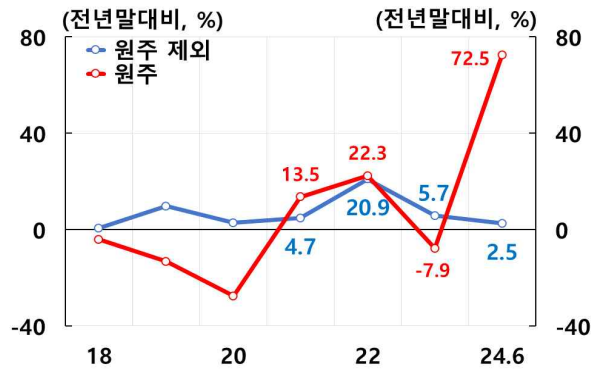
- '24년 상반기 예금은행 수신은 원주(+8조 2,377억원, +72.5%), 화천(+452억원, +11.2%)은 크게 증가하고 양양(-193억원, -5.3%), 횡성(-133억원, -2.2%)은 감소

강원지역 수신 시군별 증가율¹⁾



주 : 1) 전년말대비
자료 : 한국은행

원주지역 수신 증가율¹⁾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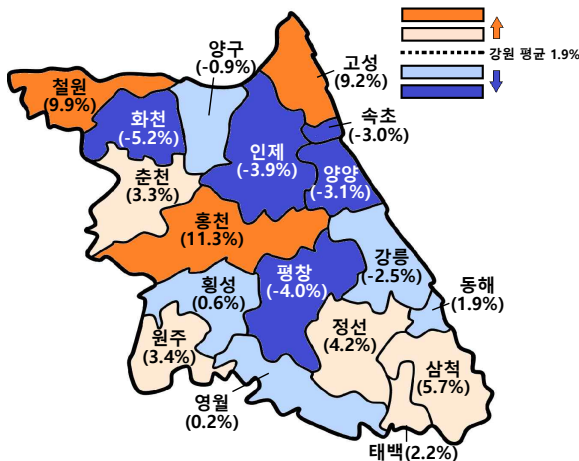


주 : 1) 전년말대비
자료 : 한국은행

- 가계대출은 원주(+1,273억원, +3.4%), 춘천(+914억원, +3.3%)이 증가하고 강릉(-445억원, -2.5%), 화천(-21억원, -5.2%)은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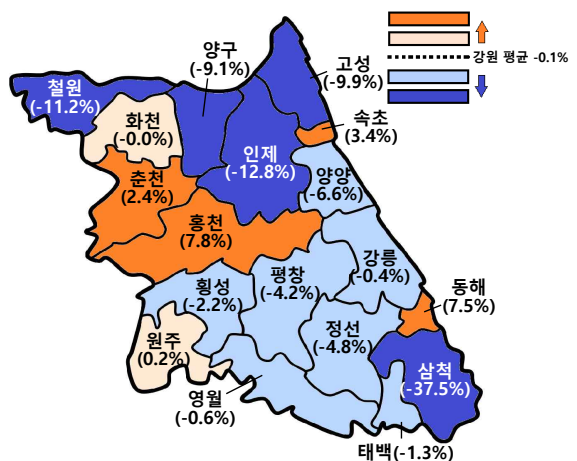
- 기업대출은 춘천(+588억원, +2.4%), 홍천(+401억원, +7.8%)이 증가하고 강릉(-88억원, -0.4%), 삼척(-585억원, -37.5%)은 감소

강원지역 시군별 가계대출 증가율¹⁾



주 : 1) 전년말대비
자료 : 한국은행

강원지역 시군별 기업대출 증가율¹⁾



주 : 1) 전년말대비
자료 : 한국은행

[강원지역 예금은행 여수신 동향]

□ **[여신]** '24년 상반기중 강원지역 예금은행 여신은 전년말대비 0.9% 증가*하면서 2019년 이후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둔화('24.6월말 잔액 25.5조원, 전국대비 1.1%)

* 여신(증감액, 조원): '22년말 24.6 (+0.7) → '23년말 25.3 (+0.7) → '24.6월말 25.5 (+0.2)

○ (차주별) 기업대출은 전년말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가계대출이 소폭 증가

* 가계대출(조원): '22년말 10.8 (-0.1) → '23년말 11.0 (+0.2) → '24.6월말 11.2 (+0.2)
 기업대출(조원): '22년말 13.5 (+0.7) → '23년말 14.0 (+0.5) → '24.6월말 14.0 (-0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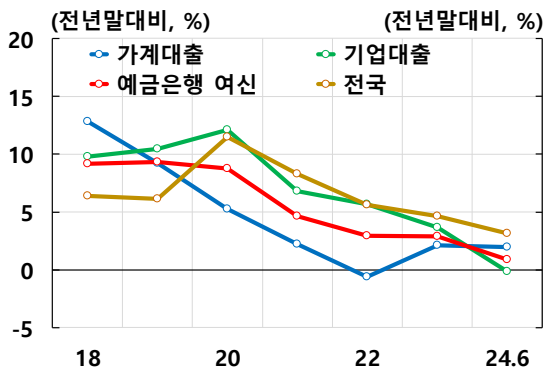
— 특히, 기업대출 증가율은 전국수준을 지속적으로 하회하며 부진한 모습*

* 전국 기업대출 증가율(전년말대비, %): '21년 9.2 → '22년 10.3 → '23년 6.9 → '24.6월 3.8
 강원 기업대출 증가율(전년말대비, %): '21년 6.8 → '22년 5.7 → '23년 3.6 → '24.6월 -0.1

□ **[수신]** '24년 상반기중 강원지역 예금은행 수신은 원주를 중심으로 전년말대비 25.0% 증가*하면서 높은 변동성을 시현('24.6월말 잔액 44.1조원, 전국대비 1.7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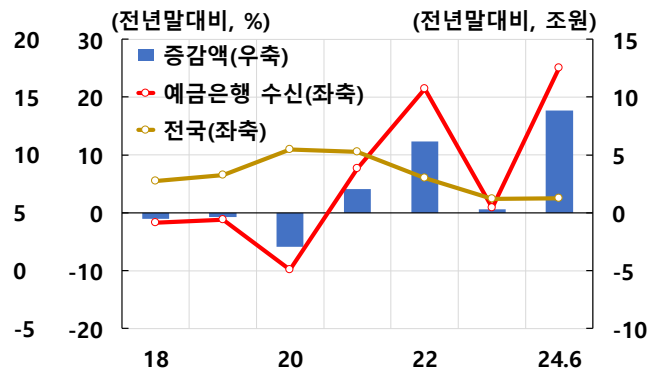
* 수신(증감액, 조원): '22년말 35.0 (+6.2) → '23년말 35.3 (+0.3) → '24.6월말 44.1 (+8.8)

강원지역 여신 증가율¹⁾



주 : 1) 전년말대비
 자료 : 한국은행

강원지역 수신 증가율¹⁾



주 : 1) 전년말대비
 자료 : 한국은행

[시군별 여신]

① 기업대출: 주요 거점도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 부진

□ '24년 상반기중 강원지역 기업대출을 보면, 도내 주요 거점도시는 전년말대비 소폭 증가*하였으나 접경, 영동 등 대부분 지역에서 부진한 모습

* 도내 주요 도시의 기업대출(조원), 괄호 내는 전년말대비 증가율(%) :

원주: '22년말 4.46 (+ 4.2) → '23년말 4.69 (+5.2) → '24.6월말 4.70 (+0.2)

춘천: '22년말 2.30 (+11.7) → '23년말 2.45 (+6.5) → '24.6월말 2.51 (+2.4)

강릉: '22년말 2.09 (+11.4) → '23년말 2.17 (+3.9) → '24.6월말 2.16 (-0.4)

○ 접경지역은 남북관계 갈등 고조, 내수의 더딘 회복 등으로 주력업종인 식료품 제조업*이 부진하면서 감소

* 접경지역 제조업 전체 부가가치중 식료품 제조업 비중(% , '22년 광업·제조업조사 기준): 인제(64.7%), 양구(43.7%), 고성(36.2%), 철원(21.6%)

○ 영동지역은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방문객 감소* 등으로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등을 중심으로 부진

* '24년 상반기중 강원지역 방문객수 증가율(% , 전년동기대비)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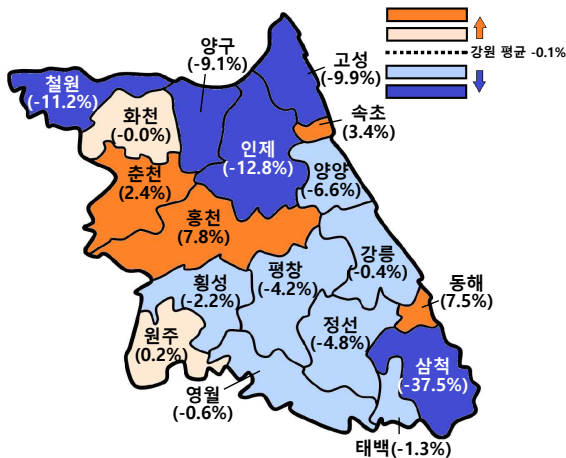
강원 전체(-3.5%), 고성(-8.7%), 강릉(-6.8%), 양양(-6.1%), 평창(-3.6%), 정선(-2.6%)

○ 다만, 원주, 동해, 춘천 등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*의 기업대출은 소폭 증가

* 강원 시군별 제조업 부가가치(강원 전체 7.2조원, '22년 광업·제조업조사 기준)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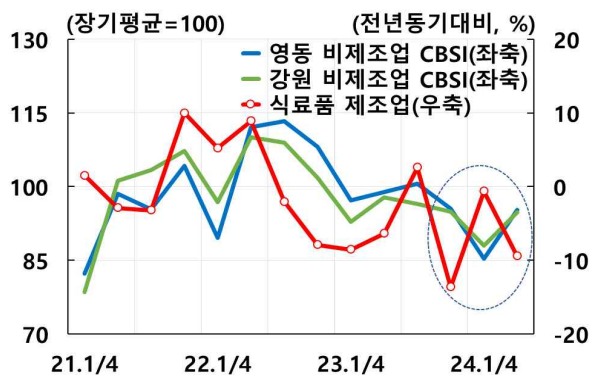
원주 2.18조원(30.5%), 동해 0.94조원(13.2%), 춘천 0.92조원(12.8%) 순

강원지역 시군별 기업대출 증가율¹⁾



주 : 1) 전년말대비
자료 : 한국은행

강원지역 제조업 생산지수 및 기업심리지수¹⁾



주 : 1) 해당분기 월평균, 장기('03~'23년)=100
자료 : 통계청, 한국은행

② 가계대출: 주택시장 상황에 따른 지역별 차별화

□ '24년 상반기중 강원지역 가계대출은 주택가격 변동에 큰 영향을 받으면서 원주, 춘천은 증가세를 이어간 반면 강릉은 감소로 전환*

* 도내 주요 도시의 가계대출(조원), 괄호 내는 전년말대비 증가율(%) :

원주: '22년말 3.66 (+ 3.4) → '23년말 3.78 (+ 3.2) → '24.6월말 3.91 (+3.4)

춘천: '22년말 2.72 (- 7.9) → '23년말 2.73 (+ 0.5) → '24.6월말 2.82 (+3.3)

강릉: '22년말 1.59 (+11.4) → '23년말 1.79 (+12.6) → '24.6월말 1.75 (- 2.5)

○ 원주와 춘천은 서울 주택가격의 오름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GTX 개발* 등으로 인한 매수심리 개선, 신축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**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증가

* 국토교통부는 GTX-B 노선을 춘천으로, GTX-D를 원주까지 연장할 예정임을 발표(24.1월)

** 아파트입주 예정물량(호, 자료: 아파트실거래가)

원주 : '23년 하반기 907 → '24년 상반기 1,516 → '24년 하반기(예정 포함) 941

춘천 : '23년 하반기 0 → '24년 상반기 638 → '24년 하반기(예정 포함) 95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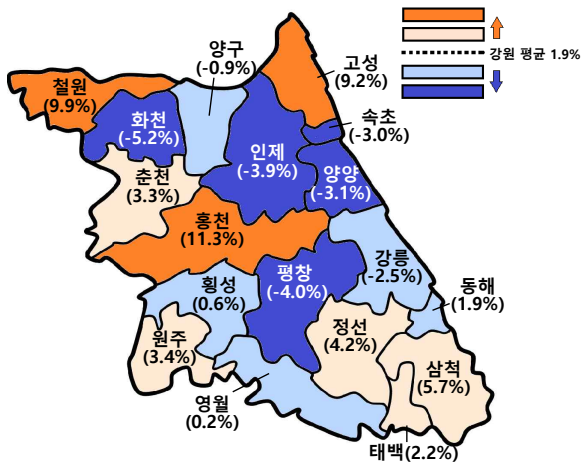
○ 강릉은 미분양 물량이 누적되는 가운데 공급과잉 우려 등으로 인한 주택시장의 부진*이 지속되면서 감소하는 모습

* 강릉 미분양주택수(호, 국토교통부): '23.6월 296 → '23.12월 1,139 → '24.6월 1,216

강릉 아파트입주 예정물량(호): '23년 1,057 → '24년 상반기 918 → '24년 하반기 2,40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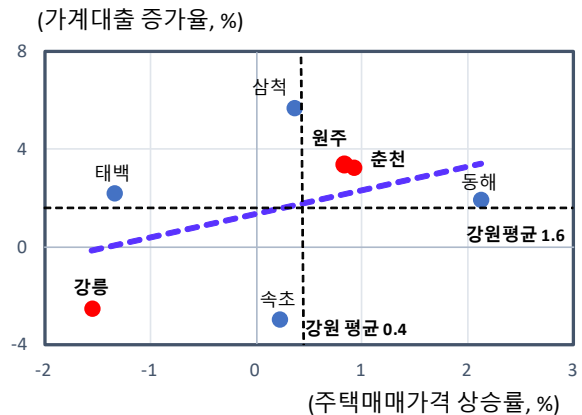
□ 전체 시군별로는 홍천(+11.3%), 철원(+9.9%), 고성(+9.2%) 등이 큰 폭 증가하였고, 화천(-5.2%), 평창(-4.0%), 인제(-3.9%) 등은 감소

강원지역 시군별 가계대출 증가율¹⁾



주 : 1) 전년말대비
자료 : 한국은행

주택매매가격 상승률과 가계대출 증가율¹⁾



주 : 1) 전년말대비 '24.6월말 기준
자료: 한국부동산원, 한국은행

[시군별 수신]

□ '24년 상반기중 예금은행 수신은 도내 주요 시군에서 대체로 소폭 늘어나는 가운데 주요 공공기관이 소재한 원주가 큰 폭 증가*

* 원주지역 예금은행 수신(조원, 괄호내는 전년말대비 증가율)

: '22년말 12.3 (+22.3%) → '23년말 11.4 (-7.9%) → '24.6월말 19.6 (+72.5%)

원주를 제외할 경우 24년 상반기중 강원지역 수신 증가율은 2.5%로 전국(2.5%)과 동일한 수준

○ 원주혁신도시에 소재한 국민건강보험공단, 광해광업공단 등 공공기관의 자금운용*으로 인해 원주의 수신이 요구불예금을 중심으로 큰 폭 증가

* 원주 소재 주요 공공기관 '24년 예산액(출처: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)

: 국민건강보험공단(115.1조원), 한국광해광업공단(4.7조원),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(1.4조원) 등

—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의정갈등 이후 자금소요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요구불예금을 위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*

* '22년 기준 건보공단 자금운용규모는 19.6조원(단기자금 6.2조원, 중장기자금 13.4조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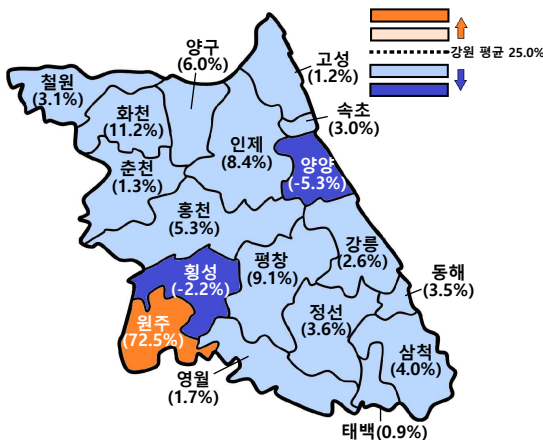
○ 반면 양양(-5.3%)과 횡성(-2.2%)은 방문객 감소, 주력 제조업 부진 등으로 가계 및 기업대출이 줄어들면서* 수신도 감소하는 모습

* 양양과 횡성의 여신은 전년말대비 각각 5.5%, 1.6% 감소

□ '24년 상반기중 강원지역 예금은행 예대율은 공공기관 수신이 증가하면서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며, '24.6월말 기준 65.5%로 '17.6월말(65.3%) 이후 최저치를 기록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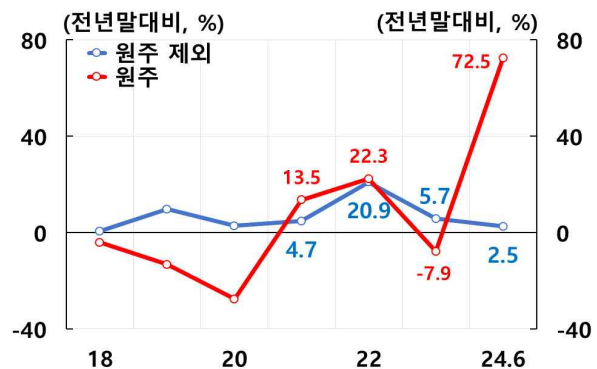
* 자세한 사항은 '<참고 2> 공공기관 이전으로 강원지역 예대율 변동성 큰 폭 확대' 참조

강원지역 수신 시군별 증가율¹⁾



주 : 1) 전년말대비
자료 : 한국은행

원주지역 수신 증가율¹⁾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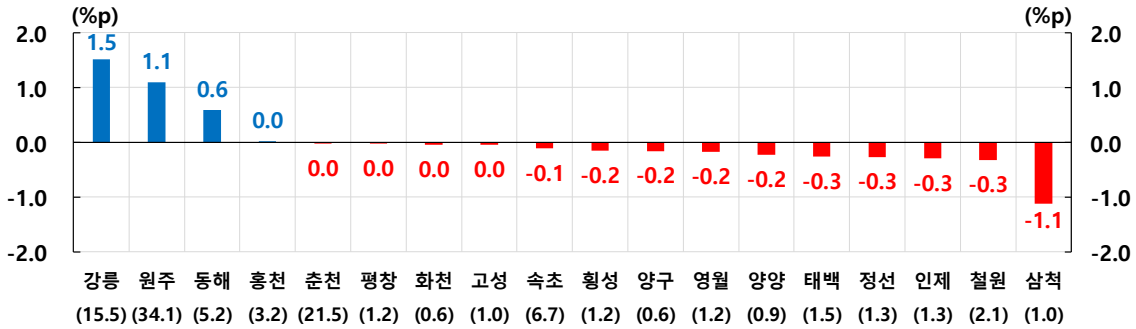


주 : 1) 전년말대비
자료 : 한국은행

<참고 1> 강원지역내 예금은행 시군별 여신 비중 변화

□ 코로나 이전('19년말) 대비 '24.6월말 강원지역내 시군별 여신 비중은 강릉(+1.5%p), 원주(+1.1%p), 동해(+0.6%p)가 증가, 춘천이 정체, 나머지 시군은 감소

강원지역내 시군별 여신 비중 변화¹⁾



주: 1) '19년말대비 '24.6월말 강원지역내 시군별 여신 비중 변화 (괄호 내는 24.6월말 기준 여신 비중, 강원 전체=100.0%)

자료: 한국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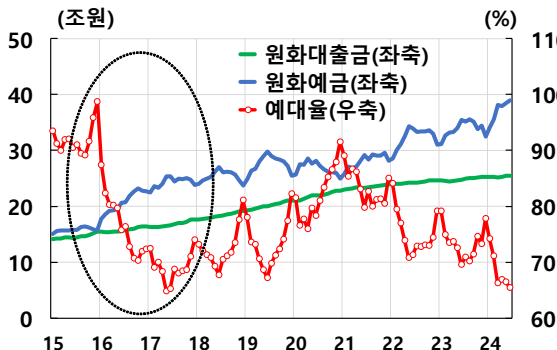
<참고 2> 공공기관 이전으로 강원지역 예대율 변동성 큰 폭 확대

□ '1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이 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해당 기관의 운용자금이 크게 유입되면서 강원지역 예대율*이 하락하고 변동성도 확대

* 예대율 = (원화 대출금/원화 수신)*100로 계산. 단, 시장성 수신(CD, RP 등)은 제외. 은행업감 독규정의 예대율 산정기준과는 차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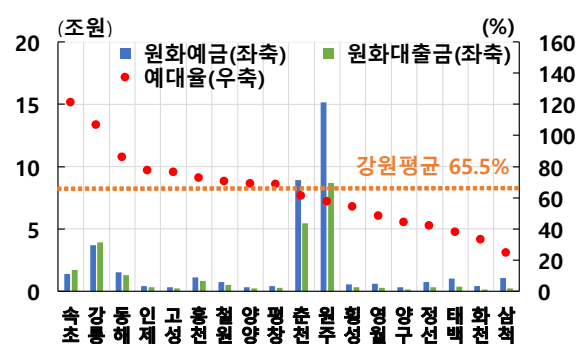
- 대출은 변동성이 낮고 대체로 안정적인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예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임에 따라 강원지역의 예대율은 주로 예금 변동에 좌우
- 전체 시군별로는 '24.6월말 기준 속초(120.9%), 강릉(106.5%)의 예대율이 높았으며, 삼척(24.8%), 화천(33.2%), 태백(37.8%) 순으로 낮았음

강원지역 예금은행 예대율¹⁾



주: 1) 시장성 수신 제외
자료: 한국은행

강원지역 시군별 예대율¹⁾



주: 1) '24.6월말 기준
자료: 한국은행